



막강수비 곰군단 vs 사기충천 영웅들

극적으로 페넌트레이스 1위에 올라 5년 연속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한 두산 베어스와 장정석 감독의 혁신적인 볼펜 전략이 돌풍을 일으키며 SK 와이번스를 플레이오프(PO)에서 3연승으로 제압한 키움 히어로즈가 22일부터 KS에 돌입한다. 전력차가 크지 않은 두 팀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두산과 키움의 KS를 SWOT 분석으로 전망한다.

●두산

①강점(Strength)-가을에 더 빛나는 수비력
두산이 5년 연속 KS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수비능력이다.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능력을 갖고 있는 유격수 김재호가 이끄는 내야, 넓은 잡살구장을 커버하는 정수빈이 중심인 외야까지 최고의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다. 두산은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서도 리그에서 가장 적은 67개의 실책만 기록했다. 최다실책팀 롯데 라이언츠의 103개와 차이가 크다.

②약점(Weakness)-가을아구 경험 없는 볼펜 핵심 이형범
이형범은 시즌 6승3패19세이브10홀드 평균자책점(ERA) 2.66, 이닝당출루허용(WHIP) 1.25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아직 단 한번도 포스트시즌(PS) 투구 경험이 없다. 위기상황 혹은 경기 후반부 승부처에 투입되는 볼펜 투수가 극복해야 할 KS의 무계감은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다. 특히 이형범은 투심 패스트볼이 주무기인 투수다. 투심 평균 구속은 140km로 9이닝 평균 삼진숫자가 4.57개다. 든든한 두산 야수진이 있지만 삼진 능력이 떨어지는, KS경험이 없는 마무리 투수.

▶두산

올시즌 최소 실책...최정상급 수비 주전 선수들 대부분 KS 경험 강점

●두산 SWOT분석

Strength (강점)	가을에 더 빛나는 리그 최고 수비력
Weakness (약점)	가을아구 경험 없는 마무리 이형범
Opportunity (기회)	강력한 에이스 린드블럼의 단기전 가치
Threat (위협)	KS 첫 주전포수 박세혁의 어깨

그만큼 첫 번째 등판 결과가 중요하다.

③기회(Opportunity)-강력한 에이스, 그리고 경험의 가치
두산은 20승 투수 조쉬 린드블럼을 보유하고 있다. 1·5차전은 분명 전략적 우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단기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선수 대부분이 KS를 경험했다는 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점이다.

④위협(Threat)-KS 첫 주전 포수 박세혁
박세혁은 올 시즌 137경기에 출전하며 양의지(NC 다이노스)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에 선정될 정도로 큰 발전을 보여줬다. 그러나 도루저지 능력은 아직 정상급과는 거리가 있다. 올 시즌 박세혁은 84회 도루를 허용했고 23차례 저지에 성공했다. 저지율은 0.213이다. 상대 팀 빠른 주자 입장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상황

◀키움

PO 3차전만에 승리해 충분한 휴식 큰 압박 속 벌떼볼펜 호투가 V 관건

●키움 SWOT분석

Strength (강점)	슈퍼에이스급 위력 하나 된 팀워크
Weakness (약점)	볼펜진의 체력소모
Opportunity (기회)	1위 두산과 똑같은 정상적인 선발로테이션
Threat (위협)	7차전 시리즈에서 더 정교해질 볼펜 시스템

이다. 특히 큰 경기일수록 포수가 빠른 주자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평정심을 유지하며 타자와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키움

①강점(Strength)-덕아웃
PO에서 키움 선수들은 매우 특별한 순간들을 자주 보여줬다. 3차전에서 1회 연거푸 수비 실수를 한 유격수 김하성에 게 박병호가 웃으며 "뭘 하나?"고 장난을 치고 곁에서 이정후가 거드는 모습은 이 팀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포스트시즌(PS)을 치르는지 한번에 보여준다. 또한 한명의 타자만 상대하고 덕아웃으로 돌아오는 볼펜 투수에게 팀 전체가 열광적인 환호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키움 이 1차전을 이긴다면 이 상승세는 슈퍼

에이스급 투수가 가세한 것 이상 강점이 될 수 있다.

②약점(Weakness)-볼펜의 체력소모
PO에서 1이닝 투구는 페넌트레이스 2~3이닝 이상 체력 소모가 심하다. 그만큼 투수들은 전력을 다한다. 장정석 감독과 브랜든 나이트 투수코치가 가장 크게 염려했고 그만큼 정성껏 대비한 부분이다. PO에서 키움 볼펜의 핵심전력 조상우, 안우진, 김상수, 오주원의 체력소모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시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큰 경기에 투입되고 있는 다른 볼펜이 얼마만큼 구위를 유지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③기회(Opportunity)-1~4선발의 1~4차전 출격
KS에서 하위 팀이 불리한 가장 큰 이유는 PO를 치르거나 후 KS에 돌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키움은 PO를 3승으로 끝내면서 감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1~4차전 선발투수를 자유롭게 시리즈 초반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④위협(Threat)-볼펜 시스템
장정석 감독의 혁신적인 PS 볼펜 시스템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준PO, PO와 달리 한번 볼펜 투입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선전해온 투수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장 7차전까지 이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키움의 볼펜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한다. 장 감독의 바람대로 선발투수들이 더 긴 이닝을 던져야 KS에서도 볼펜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올가을 달라진 마운드 트렌드

PS 8경기 선발승 1승 더 커진 '볼펜' 존재감

키움 '전원 필승조' 새 패러다임 제시

포스트시즌(PS)은 변칙의 경연장이다. 적게는 3승, 많게는 4승이 필요한 KBO리그 PS의 특성상 144경기 장기 레이스의 운영법을 고수하는 팀은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다. 때문에 PS에서는 사령탑, 그리고 구단의 철학이 담긴 '변칙'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트렌드 변화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도 잦다. 올 PS에서도 단기전 전술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야구는 투수, 특히 선발투수이다." 선발투수가 누구보다 중요함을 드러내는 격언이다. 선발투수가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버티는 팀은 경기 계산을 세우기가 쉽다. 단기전에서 '슈퍼 에이스'의 존재감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올해 PS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플레이오프(PO)까지 8경기에서 나온 선발승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케이시 켈리(LG 트윈스)가 거둔 1승뿐이다. 나머지 7승은 모두 구원승이다. 단일 PS 최소 선발승 페이스다. 종전 기록은 2010년의 2승이다. 선발승이 가장 많았던 2015년, 2009년, 2005년 등의 10승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페이스다.

단순히 '승리'라는 지표를 떠나 이닝 소화에서도 비중이 떨어졌다. 올해 정규시즌 전체 1만2775이닝 중 선발투수가 소화한 건 7792이닝으로 전체의 61.0%였다. 하지만 PS 145.1이닝 중 선발투수는 72이닝만 책임졌다. 비중이 49.5%까지 떨어졌다.

물론 단기전에서 선발투수 교체 시점은 대부분 빨라진다. 선발투수의 이닝 비율은 지난해에도 정규시즌(59.6%)이 PS(56.3%)보다 많았다. 다만 차이는 올해만큼 크지 않았다. 2017년도 정규시즌 60.2%, PS 57.7%였으며 2016년에는 정규시즌 57.2%, PS 65.6%로 오히려 가을에 선발 비중이 더 커졌다. 약간의 흐름 차이는 있지만, 정규시즌에 비해 선발투수 비율이 크게 떨어진 PS는 올해가 처음이다.

'볼펜 전원 필승조'를 구축한 키움 히어로즈를 중심으로 SK 와이번스, LG 모두 선발투수에게 긴 이닝을 고집시키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해낸 키움은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 볼펜의 이닝을 쪼갬다. 9~10명씩의 볼펜진이 등판해도 소화하는 이닝이 적기 때문에 무리도 덜하다. 물론 정규시즌에도 이러한 운영을 고수하기는 어렵지만, PS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 준비, 그리고 분석의 힘이 키움을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최익래 기자



"가을야구 아쉬움만큼 더 분발"

김경문호 합류한 에이스 김광현

베이징 막내가 어느덧 투수 넘버2 양현종과 대표팀 원투펀치 책임감 "베이징 경험, 후배들에게 베풀 때"



"꿈의 팀이라고 할 시더라도, 기대에 부응해야죠."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이 훈련 중인 수원KT위즈파크는 21일 더욱 활기차게 열렸다. 플레이오프(PO)에서 탈락한 SK 와이번스 소속 김광현, 최정, 이재훈, 박종훈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제 선수만 16명으로 기본적인 수비 훈련까지 가능한 인원이다.

김 감독은 대표팀 소집 직후부터 포스트시즌(PS) 탈락팀 소속선수의 동기부여를 염려했다. 하지만 SK 선수들은 PO 탈락의 여파에도 책임감을 갖고 훈련에 임했다. 김 감독도 "역시 국가대표다운 책임감"이라며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김광현은 1차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발가락 부상 탓에 마운드를 일찍 내려갔다. 팀은 키움 히어로즈에 3연패로 '스윙패'를 당하며 무너졌다.

훈련 후 만난 김광현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의미가 없다. 팀이 졌다는 건

결국 다 같이 못한 것"이라며 "나 역시 어깨, 팔꿈치가 아니라 발가락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런 창피한 일"이라고 자책했다.

이어 그는 "반성을 정말 많이 했다. SK 선수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대표팀에 합류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이다. (최)정이 형과 함께 소속 팀에서 못한 만큼 더 분발하자고 다짐했다"고 털어놨다.

동갑내기 친구 양현종(KIA 타이거즈)과 원투펀치를 맡아야 하는 상황. 그는 "시즌 때도 '둘이 같은 팀이면 좋겠다'는 팬들의 바람이 많았다. 나도, 많은 분들도 꿈꾸는 팀이라 설레고 기분 좋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좋은 성적 거둬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08베이징 올림픽 당시 막내였던 김광현은 김경문 감독과 함께 금메달 신화를 이룩한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어느덧 투수 조 '넘버 2'가 됐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 감독님이 너무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셨다. 이제 그걸 후배들에게 베풀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문 감독도 "스타는 팬이 있어야 존재한다.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야구 열기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베이징에 이어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야 한다. 나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야구 열기. 김광현, 그리고 김 감독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표팀은 또 다른 선전으로 열기 향상을 꿈꾸는 중이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SK 김광현(위)이 2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훈련 중인 야구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PO 탈락의 아쉬움이 남아있을 법하지만 김광현은 "대표팀에 합류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며 의욕을 다졌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광현. 수원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